

통일부 장관,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 면담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0일(화) 오후, 방한 중인 롤프 뮈체니히(Dr. Rolf Mützenich) 독일 연방의회 의원과의 면담에서 국제,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-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소개하고 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.
 - 특히, 지구상에서 병력과 화기가 가장 밀집되어 우발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비무장지대(DMZ)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간 소통 재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
 - 아울러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지속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쟁의 당사자인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.
- 뮈체니히 의원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,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연대가 한반도 평화와 유럽의 안보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
 - 또한, 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라는 정 장관의 진단에 공감을 표했다.
 - 이어서 평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양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유라시아는 물론, 세계 평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.
-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히 소통·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
붙임 : 면담 사진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	책임자	과 장	서영신 (02-2100-2370)
		담당자	사무관	노일준 (02-2100-2372)

붙임

면담 사진

